

내년 차기 교육금고는 어디?

전북교육청, 금고지정 일반경쟁 공고... 4년간 교육비특별회계·기금 관리

내달 3일 금고 지정 희망 금융기관 대상 설명회... 10~11일 제안서 받기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차기 교육금고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누리집에 게시된 이 공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향후 4년간 교육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단일 금고로 운영된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교육비특별회계의 각종 세입금 수납과 보관,

세출금 지급, 기금 및 여유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오는 9월 3일 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9월 10~11일 이틀간 금융기관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9월 중 교육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쳐 최고 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을 교육금고로 지정·운영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의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교육기관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이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책임 있고 우수한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2025년 노·사 청렴 공동실천 간담회가 열렸다.

노조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협력

전북교육청, 노·사 청렴 공동실천 간담회

반부패 정책 방향·상호존중 문화 정착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조와 협력기로 했다. 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5층 회의실에서 2025년 노·사 청렴 공동실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노사가 함께 청렴 실천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 총연합회, 한국교육노동조합교원단체 등 교원단체 4곳,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 전북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지방공무원 노조 4곳 등 전북교육청 소속 8개 노조 대표자 모두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반부패 정책 및 청렴문화 확산 방향 공유 △노사 간 상호존중 문화 정착 방안 △부당한 요구 및 이익을 위한 행위와 관련한 대응 △청렴활동 활성화 위한 의견 청취 및 협의 등이 다뤄졌다. 교원단체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 대표들은 “부패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청렴한 전북교육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강력한 부패 근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

았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청렴 체감도가 낮은 현실을 개선하고, 교직원 간 갑질을 근절 및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 간의 신뢰를 쌓고 상생하는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실천 과제의 구체화, 그리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협력 체계가 강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성원 간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청렴하고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반딧불축제 태권도 상설공연 보러 가자

전주대 태권도학과, '헌터스' 선배

축제 기간동안 체험형 콘텐츠 제공

전주대학교 태권도학과가 오는 9월 6일부터 열리는 제29회 무주 반딧불축제에서 지역특화 태권도 상설공연 '헌터스(Hunters)'를 선보인다. 26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태권도시티 무주' 조성파 글로벌 태권도 문화 확산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 전주대학교가 협력해 전북 RISE 사업 태권도 중주곡 위상 정립을 위한 태권도 HUB 산업 활성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태권도시티반단 '싸울아비'가 선보이는 헌터스(Hunters)는 태권도의 겨루기·격파·품새 등 태권도의 전통 무예 요소와 LED 스크린, 특수조명 등 현대적 무대예술이 결합된 역사

판타지형 태권도 상설공연이다. 특히, '싸울아비'는 세계 무대에서 이미 명성을 얻은 태권도 공연팀으로 영국 'Britain's Got Talent'에서 한국팀 최초로 골든부처를 받아 파이널에 진출했고, 이탈리아 'Tu Si Que Vales'에서 한국인 최초로 결승에 올랐다. 또한 2024년 '위대한 태권도'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으며, 현재는 스페인 오디션 프로그램 'Got Talent Espana'에 출연할 예정이다. 태권도학과 이숙경 학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무주군의 대표 축제와 연계된 지역특화 태권도 상설공연으로, 무주군을 세계적인 태권도 성지이자 문화관광 거점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며 “동시에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공연·체험·교육이 결합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태권도학과는 지역특화 상설공연인 헌터스(Hunters) 뿐만 아니라, 축제 현장에서 다양한 태권도 체험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이다. 반딧불축제 동안 태권도 체험·교육 부스를 마련해 스트링, 펜, 스텝 등 활용한 송판아트(목판 꾸미기 체험), 격파물을 활용한 오늘 의 격파왕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 제공하고,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전! 태권 골든벨' 이벤트를 개최한다. 또한 축제장 곳곳에서 갑작 펼쳐지는 게릴라 태권도 시범공연도 준비돼 있어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 세계 소 탄소 배출량 산정 'K-모델' 첫 개발

전북대 이학교 교수 연구팀, 소 개체별 생산성·탄소 배출량 관계 과학적 규명

고가 측정 장비 없이도 손쉽게 활용 가능해져... 국제 탄소배출 시장 진입 발판

전북대학교 이학교 교수(동물생명공학과·사진) 연구팀이 전 세계 204개국, 약 13억 마리 소의 탄소배출량을 개체 단위로 산정할 수 있는 혁신적 모델을 개발해 학계와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모델은 농식품 부문에서 1,2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ETS)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국제 저탄소 축산물 인증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UN 산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방법론과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60년간 축적된 공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산성과 배출량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특히 소의 체중, 출하 연령 등 기본적인 데이터만으로도 배출량 계산이 가능해 고가의 장비 없이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경제적 격차로 인한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환경과학 분야 권위 학술지인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IF 10.0, 상위 6%) 최신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앞서 전북대 연구팀은 CES 2023에서 가축 탄소 모니터링 및 탄소 크레딧 공유 플랫폼을 공개해 주목받았다. CES 2025에서는 이번 연구 성

과를 바탕으로 국제 표준화를 위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였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와 저탄소 축군관리 시스템을 구축, 최초로 지역 단위 농가에서 저탄소 우량 암소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1저자인 허재영 교수는 “이른바 'K-모델'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데이터로 탄소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축종의 보편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수 있는 공평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학교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한국이 세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국제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이 모델을 확산시키고 각국 축산업의 탄소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자담배 확산 대응·금연교육 역량 강화

전북교육청,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 청소년 흡연태도 분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전자담배 예방 및 금연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2차)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내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관리자 2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연수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확산과 신종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 나아가 마약류 노출 위험에 대응하는 학교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유·초등학교 관리자 147명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중·고교 및 특수학교 관리자 1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센터장이 강사로 참여해 △국내의 담배제품 및 담배시장 변화 △청소년 주변 흡연 환경과 행동 분석 △액상형 전자담배와 신종 마약 노출의 관련성 등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특히 지난 7월 실시된 1차 연수에 이

은 2차 과정으로 참석자들은 청소년 흡연 실태와 담배시장 변화가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금연 지도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연수에 참여한 한 초등학교교장은 “학생들의 전자담배 사용 실태가 예상보다 심하고,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가 마약류와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다”며 “금연교육이 단순계도 차원을 넘어 체계적인 예방교육으로 강화돼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문제는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라며 “학교 관리자들이 중심이 돼 흡연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금연 문화가 학교 현장에 정착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전주 베스트웨스턴플러스에서 하반기 예산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예산업무 담당자 실무능력 향상 지원

전북교육청, 본예산 편성 앞두고 직무교육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전주 베스트웨스턴플러스에서 하반기 예산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예산업무 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수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업무를 앞두고 예산업무 담당자들의 지방교육재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맞춤형 예산관리시스템(LIBS) 사용법 안내 △특별교부금 운용 요령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이해 △재정투자사업 심사의 대응 방안 등 예산편성

과 운용에 대해 상호 공유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부패 유발 요인 및 청렴 체감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지역(학교)에서 체험하는 청렴 저해 요인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해소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예산업무 담당자들의 직무능력이 향상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미래 100년 준비 다짐

전북대 총동창회

28일 제41대 출범식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최병선·치의학 80)가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 진수당 77주년 기념홀에서 제41대 출범식을 갖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출범식은 지난 4월 대의원회에서 연임이 확정된 최병선 회장의 공식 연임을 알리는 자리로 동문과 교직원, 국회의원, 단체인, 기관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임 집행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여, 양오봉 총장과 내·외빈 축사 등이 진행된다. 특히 제41대 출범 선포식을 통해 동문 결속을 다질 예정이다. 특히, 이날 출범식은 전북대 총동창회가 올해 출범 70주년을 맞아 동문사회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장은성 기자

원광대 한의대 박사과정생

보건장학회 연구지원 장학생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원 박사과정생 주성준 씨가 보건장학회 2025년 연구지원 장학생으로 최종 선정됐다. 주씨는 '부정맥에 대한 한의학



적 중재의 효과: 관찰연구 기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연구 주제로 장학금을 수혜받는다. 이번 선정은 연구의 학문적 우수성과 한의학적 치료의 과학적 검증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보건장학회는 1963년 국내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유한양행 창업자 고(故) 유일한 박사의 기탁 주식과 자체 인사들의 후원으로 현재까지 약 1,000명 이상의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주씨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부정맥 치료에서 한의학적 접근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통합의학적 치료 근거 마련에 기여할 계획이다. 연구를 지도한 임정대 교수는 “이번 장학금이 주성준 대학원생에게 큰 동기부여가 돼 심장질환 치료에서 한의학적 중재 근거를 창출하고, 지역민 건강 증진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